

광주·전남 기업들, 미국 'CES 2025'서 IT 기술력 선보인다

광주, 36개사 참가...광주관서 AI 기반 헬스케어 등 우수제품 전시 전남 기업들, 메타버스 활용 체험존·스마트팜 제어 시스템 등 공개

광주와 전남도가 지역 기업 51개사를 이끌고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5'에 참가해 우수한 기술 역량을 전 세계에 선보인다.

7일 광주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현지시간)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5'에 광주지역 기술기업 36개사가 참가한다. 광주시는 이날 현지에서 'CES 2025' 광주공동관 개관식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참가기업들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광주공동관과 KOTRA 통합한국관 내 광주관 등에서 우수 기술 제품을 전시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 7월 'CES 2025' 광주홍보관에 참가할 기업을 공모하고 15개사를 선정했다. 광주공동관에는 ㈜인비즈, 주식회사 정선메드, ㈜트위그램, 이-솔테크, ㈜아트랩, ㈜인디제이, ㈜호그리너, ㈜리버트리, 주식회사 유니컴퍼니, 에코피스주식회사, ㈜블루캡 등 11개사가 참가해 우수한 기술력을 뽐낸다.

KOTRA 통합한국관 내 광주관에는 ㈜오이온에이아이, 주식회사 울더터인, ㈜사카, 주식회사 메리헨드 4개사가 참가해 전시를 진행한다.

'CES 2025' 참여 광주 기업들은 주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 ㈜인비즈는 의료영상정보시스템 및 심장초음파자동화 인공지능솔루션 'AI 에코 케어', 에코피스는 수상 레저 활동과 함께 수질정화 기능을 갖는 융복합 제품 '힐링보트', 이-솔테크는 에너지절감 및 IT기술을 적용한 '다목적 모듈러 챔버' 등을 전시한다.

광주에서는 광주시가 선정한 15개 기업 외에도 지역기업 21개사가 'CES 2025'에 함께 출품했다. KOTRA의 지원을 받은 영앤, 디닷케어, 라라랩스, 주식회사 알엑스오는 통합한국관에 자리를 마련했으며, 삼성C-LAB 지원 기업인 ㈜고스트패스, 마인스페이스도 출품한다. 특히 고스트패스는 이번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마인스페이스는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이다.

전남대학교도 주식회사 오토웬즈, ㈜엔에이치랩스, ㈜그린트크, 엠스, 웨어플랫을 이끌고 'CES 2025'에 참가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에스오에스랩 등 3개사는 개별적으로 CES 2025에 참가하고, 행정안전부-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의 지원을 받은 7개사도 CES 2025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기술력을 겨룬다.

전남도 역시 전남지역 혁신 기업들과 참여해 글로벌 공동관을 운영하고, 첨단 기술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선보인다. 전남도 공동관에는 지난해(11개)보다 많은 15개사가 참여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체험존도 새롭게 마련됐다.

체험존을 운영하는 ㈜뉴작은 메타버스와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두 분야에서 CES 혁신상을 받았다.

전남지역 기업들은 스마트팜 제어 시스템과 농업용 유동팬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솔루션을 제안(신안그린테크)하는가 하면, 물 순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챔버형 스마트팜을 전시(테라웨이브)한다. 또 인공지능 기반 개인 맞춤형 운동 분석 기술(피투제이)과 재활치료용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네오드립스)도 제시한다.

이외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기술(와이그램)로 창의적 디지털 경험을 선사하고 홀로그램 기반 광안내 시스템(스마트큐브), 회전식 수상 태양광 시스템(비케이에너지) 등도 전시된다.

'전남 대학생 참관단'으로 구성된 6개 대학 7개 팀 50여 명이 CES 전시장을 찾아 첨단 기술과 글로벌 산업 동향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떡국 떡' 위생점검 7일 광주 북구청 위생과 식품가공팀 직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매곡동의 한 설 성수식품 조리업체에서 식품 등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광주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인상...연령별 차등 지원

13세 이상 월 9만원 올려 45만원

광주시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최대 월 9만원 인상하는 등 지원금액을 현실화한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1인 월 36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연령별로 차등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7세 미만은 이전과 동일한 월 36만원을 지원하며,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4만원 인상한다. 13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은 4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9만원을 인상한다.

광주시는 가정위탁 아동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과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권고안에 맞춰 연령별 차등 확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취학 이후 양육비용 소요가 많은 7세 이상 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인상을 통해 양육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의지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친부모 사망이나 부재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 현재 광주에는 300여명의 가

정위탁 아동이 있다. 광주시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전문아동 보호비 ▲아동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그동안 가정위탁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월 36만원씩 지급했지만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을 현실화했다"며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설명절 대비 도시철도 2호선 안전점검

13~15일 본선 6개 공구 대상 시설물 안전·미관 개선 중점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부터 15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구간으로, 유촌동차량기지를 제외한 본선 1-6공구(시정-광주역)이다.

이번 점검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상 시설물 안전과 주변 미관 개선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상태 ▲작업-통행구간 내 제설 등 설해예방 조치 ▲가설물타리, 안전보호망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상태 ▲차선 도색, 복공 단차, 포트를 등 주변 보·차도 정비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긴급조치 후 사안별 관리계획을 수립해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오영걸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연휴 기간에도 공백없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금융정책협력관에 이태기씨 위촉

금융감독원과 소통창구 역할

광주시는 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금융정책협력관으로 이태기(금융감독원 2급)씨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태기 신임 금융정책협력관은 앞으로 1년간 광주시와 금융감독원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금리·자금 운용, 금융기관과 협력사업(특례 보증) 등 광주시 경제정책 수립 및 재정 운영 자문을 맡는다.

이 협력관은 광주 출생으로 2002년 금융감독원에 입사해 보험감독관, 생명보험검사관을 거쳐 보험리스크관리국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협력관이 장기적 경제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지방세외수입 평가 1위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전국 도 단위 1위를 달성, 최우수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 등을 반영해 1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세외수입 징수율 등 정량평가(80점)와 자체 징수 노력도 등 정성평가(20점)를 합산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남도는 광역도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기초 지자체 부문에서는 곡성군이 최우수, 여수시와 고흥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각각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겨자씨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총계		84	21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